

각진국사 속가문중 650년만에 큰절



각진국사 추모제에 앞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고성이씨 대표 이한동 前 국무총리가 국사전에서 헌향하고 있다.

열반 650주기 추모제에 후손 500여명 참여

문중 추모제 정례화키로

“각진국사 할아버지, 업드려 참회하옵나니 어여뻐 받아주소서.”

8월 31일, 송광사 제13세 각진(覺眞)국사의 열반 650주기를 맞아 국사의 속가 문중인 고성 이씨(固城李氏) 방손들이 송광사 국사전을 찾았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속가 후손들은 “오랜 세월 무심히 보낸 후손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며 각진국사 진영에 꽃과 차를 올렸다. 무려 650년만의 큰 절이었다.

고성이씨 문중 대표 이한동(前 국무총리)씨는 추모사를 통해 “국사할아버지는 속가 문중의 크나큰 자람이자 자손이며 긍지였다”며 “문중의 후손들은 나라를 융성시키고 민생을 복 되게 하신 국사할아버지의 뜻을 새겨 인류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힘 쓰겠다”고 다짐했다.

송광사 화주 법흥 스님도 법어에서 “송

광사 16국사 가운데 속가 후손들이 기일을 맞아 추모하기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뜻깊은 일이다”며 “각진국사가 보이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모제에 고성이씨 문중들의 참여를 주선한 이선전 포교사는 “문중 후손들에게 각진국사의 행적을 알리고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문중차원의 추모제 참석을 매년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각진국사는 1270년(고려 원종) 고성이씨 아버지 문화공 휘 준비와 어머니 익산 이씨의 둘째 아들로 경남 고성에서 탄생했다. 속가 이름은 정(精), 출가 법명은 복구(復丘)이다. 10세에 조계산 제5세 원오 국사를 은사로 사발 득도하고, 1321년 송광사 제13세로 주석하며 20여 년간 종중을 이끌었다. 1350년 충정왕이 왕사로 봉하고 각임존자로 칭했다.

글·사진/송광사·이준엽 기자

경기남부 교사불자 동친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교사불자들이 신행모임을 결성할 전망이다.

안양, 군포, 의왕, 안산 등 경기남부지역 교사불자 40여명이 9월 8일 오후 6시 30분 군포 정각사에서 경기남부교사불자회 발기

발회를 개최한다.

경기남부교사불자회가 창립될 경우 서늘·경인지역을 한 지부로 묶어 관리하던 교사불자회의 조직 세분화는 물론, 거리가 멀어 참여를 주저했던 교사불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청소년 B-boy 배틀대회 열려

월정사,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청소년 문화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B-boy 배틀 대회가 열린다.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주관으로 열리는 배틀대회는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4시 30분부터 16개팀 배틀형식으로 진행된다. 깃발러 크루의 축하공연 속에 오후 6시부터 4개팀 배틀형식으로 본선전이 열리며, 결선은 최종 2개팀 배틀형식으로 치러진다.

1위를 수상한 팀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위를 수상한 팀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팀 전원에 교통비가 지급되며 지방에 거주하는 참가팀에게는 숙박도 제공된다. 참가는 인터넷(foxlike1229@naver.com)과 전화(033-335-1318-9)로 접수.

이번 축제는 이 외에도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이운사 및 친견 △한국, 대만 채식향연 △천년의 소리 찾아 떠나는 발빛 걷기 △선(禪)음악회 △학술세미나 △각종 수행 체험 등이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수원포교당, 청주에 청수사 10월 개원

지역포교·봉사자 확보 기대

수원지역에서 모범적인 포교활동으로 귀감이 되어온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충북 청주에 포교당을 개설한다.

청수사(주지 지전)로 명명된 이 포교당의 정식 개원 시기는 10월 초께. 수원포교당이 청주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부터다. 청주북부사회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나오던 자원봉사자들이 포교당 개원을 요청한 것.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청주지역 포교와 봉사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이를 수락했고,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9-5번지의 건물 3층에 자리를 잡고 기초교리 강화를 시작하면서 전법도당의 면모를 갖추어갔다. 법당과 요사, 사무소 등



8월 29일 열린 청수사 기초교리강좌 입학식 모습.

100여명 규모의 청수사는 개원을 할 때 영입하고 인근 불자들이 예비불자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이 자리에서 성관 스님은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청주 포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043)218-9995

글·사진=혜철 대전지사장

송광사, 몽골 어린이에 불서 보급

송광사에서 송광사(주지 영조)가 몽골 불교 재건을 위해 몽골 어린이 포교를 지원한다.

금년초부터 몽골어린이 포교를 준비해온 송광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 표단을 몽골 현지에 파견해 지원방안을 협의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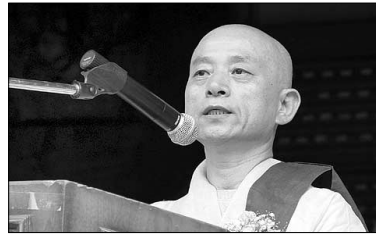
현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대표단에 따르면 몽골 간단사에서 몽골어린이 포교를 위한 실무는 논의하고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울란바토르 간단사와 연꽃 고아원을 방문하고 미리 준비한 겨울옷 40박스, 학용품 10박스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대표단은 몽골 불교계로부터 몽골어 <불교사전>, <부처님 일대기> 보급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1만여권을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인쇄해 전달키로 했다.

한편 대표단은 현지답사 일정도중 몽골

대통령 영부인의 초청으로 영빈관을 방문하고 오찬을 나눴다. 이준엽 기자

금중 스님 자서전 출판기념회



금중 스님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리산 천은사 주지 금중 스님은 9월 1일 대웅전 앞 마당에서 ‘자서전 <다시태어나도 이길> <공판과 귀 출판 기념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종회 의장 범등, 군중교구장 일면,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과 지역기관장,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삶에서는... 군포 정각사

교육 통한 실천불교 생활화



정각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의 시각을 사회로 넓혀준다. 정각사 주지 정영 스님과 신도들이 사찰운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층아파트가 길게 늘어난 군포시 산본의 중심상가에 자리 잡은 정각사(주지 정영). 지역불자들의 안식처 역할 하는 정각사는 신도시 포교를 일구는 도량이다. 다른 종교와 달리 신도시포교에 취약한 불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곳 군포에서 만큼은 예외로 평가받는 것도 정각사의 지역포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각사는 2001년 11월 개원한 이래 1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도 확보는 물론 300평이 넘는 신행공간을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을 사찰에서 사회로 넓혀주고 있다. 정각사는 개원 이후 줄곧 불자로서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신도교육과 불교교육에 힘써 왔다. 올해에는 정각과 정인 화엄불교대학을 개교했다. 1기 모집에 160여명의 불자들이 등록할 만큼 신도들도 열성적이다.

학생들은 봉사를 정기적으로 생활화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신·해·행·중’의 학훈을 구현해내고 있다. 군포 가야종합복지관과 매곡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화성 자재정사 등지에서 눈부시게 활동하는 그들의 모

‘좋은인연맺기’ 운동 통해 중·고교생 가장 후원 신도·학인 모임, 지역민 혼합 봉사조직 체계화

뿐만 아니라 군포시청, 군포경찰서에 불자모임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불심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정각사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지스님께서 앞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반야월(43·군포 산본동) 보살의 말이 그 답이었다. 교육인 셈이다. 여기에 신도조직을 효율적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 지역·계층별 포교전략에 따라 매년해 나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영 스님은 결식아동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을 후원하는 ‘좋은인연맺기’를 통해 신도들의 시각

을 이룰 잘 보여준다. 정각사는 지역단위 신도모임과 불교대학 학인모임을 적절히 혼합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을 한 팀으로 묶어 지역팀을 만들었고, 지역팀원들을 다시 불교대학 학인모임과 결합시켰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포교를 비롯해 정각사 운영과 봉사활동 등의 중심을 이룬다.

정각사는 이제 갖 태어난 어린이와 다름없으면서도 어린이·청소년 법회까지 운영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법회와 중·고등부 법회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PC방, 노래방을 갖춘 전천후 놀이터로 바뀐 정도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자연 속에 천동,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정전기** 천둥 번개가 칠 때 지구로 정화해 주는 원리를 모방하여 살균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 필터** 신소재 린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준다.
- 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다.
-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클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번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성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어느 곳에든 자유롭게 이동 설치 가능함.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 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안전연구소의 시험 합격인증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객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기능 5단계에서 84단계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함.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성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층층을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써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원제품이며 특별한 기술력으로 스피크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 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인간전 오존(O₃))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형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수신통조가피

禮獻

禮獻(예현)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국영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현 禮獻

제품도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용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현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생약연구에 활용되어 있다는 오가피 제품은 생약수수신 오가피와 동의의 관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900개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2kg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통조가피 예현은 1달에 오직 900kg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통조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현에는 복제품을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달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현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신통조가피 예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명호 교수가 직접 작성한 분청디안을 드립니다.